

경기신문

2016년 06월 15일 (수)  
13면 특집



## 248km 녹색 허리띠 ‘인류 공동의 유산’ 부활의 날갯짓



‘동서길이 248km’, ‘생물 서식 6천여종’, ‘경제적 가치 약 11조5천억원’.

세계 유일의 안보현장이자 생태보존인 DMZ(비무장지대)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DMZ를 아시아 최대의 자연보호지역으로 보존하고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터전으로 남기려는 작은 날갯짓이 경기도에서 시작될 것이다.

독일연방 자연보존청 장관생태국장인 ‘우베 리겐’ 국장을 비롯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시모네 콰트르니’ 기금관리국장, ESP(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공동 의장인 ‘루돌프 드 호프트 교수’,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 등 세계 유수의 관련 전문가가 지난달 31일 한국을 찾았다.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경제 성장에 방황한 국내 정책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뒤얽힌 DMZ에 숨은 가치를 하나하나 풀어내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양대 예리자 본파란 스푼에서 열린 ‘DMZ 국제 워크숍’에 참석해 “DMZ를 아시아 최대의 자연보호지역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공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행사는 ‘제1회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지역 총회(Asian ESP Conference)’와 연계해 추진됐다.

제시안을 정리해보면 ▲ ‘DMZ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DMZ 생태문화유산 지정 추진’ ▲ ‘DMZ 가치와 매력 정량화 및 인식 증진’ ▲ ‘DMZ 생태서비스 브랜드화’ ▲ ‘DMZ 포럼 기능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ESP(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는 경기도에 최초의 아시아 자부 선지 계획을 밝혔고, “DMZ 포럼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동된 의견을 제시했다.

ESP는 전 세계 1천500여명의 전문가가 6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ESP 공동 의장인 ‘루돌프 드 호프트’ 교수와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를 비롯해 우베 리겐 박사 등은 DMZ 국제 워크숍 중 가진 전체 토론에서 ‘아시아 및 전 세계 협력 플랫폼 마련을 위

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DMZ 포럼을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DMZ 포럼 기능 확대를 통해 경기도와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역시 이같은 제안에 반응했다.

도는 ‘DMZ 국제 워크숍’ 결의문 추진을 비롯해 도의 전문가 협력 플랫폼인 ‘DMZ 포럼’에 국외 전문가 자문그룹을 추가하는 등 DMZ 보존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신문은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현재경 대표를 비롯해 ▲ESP 공동 의장 ‘루돌프 드 호프트 교수’,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 ▲독일연방 자연보존청 장관생태국장 ‘우베 리겐’ 국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시모네 콰트르니’ 기금관리국장 ▲유엔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총장 ‘다미아나 카사비타’ 사무총장 등을 위한 생태문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영했다.

(편집자 주)

사진제공=경기공공청사 경기신문DM

‘DMZ 국제 워크숍’ 개최 생태평화 파트너십 구축 논의

‘아시아 최대 자연보호지역 보존 위해 DMZ포럼 확대해야’ 세계 전문가들 ‘한목소리’



제1회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ESP) 아시아지역 개막식이 지난달 31일 한양대학교 예리자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려 제공길 인산시장, 회계학 국립생태원장, 루돌프 드 호프트 (네덜란드 비호남영대) 교수, 로버트 코스탄자 호주 크로포드대학 교수 등 비롯한 참석내빈들이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다짐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이진우기자 poe11@

36.3 X 29.0 cm

Interview



생태계의 보고



글로벌 트러스트로 만들자

윤병집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DMZ 보존 위한 아시아플랫폼 필요

워크숍 격년제 추진 국제네트워크 구축”



“DMZ(비무장지대) 보존을 위한 아시아 플랫폼 구축을 위해 ‘DMZ 국제 워크숍’ 격년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관련, 경기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국을 대표하는 평화와 생명의 보고인 DMZ가 가진 모든 가치, 즉 역사적 사실, 환경, 지역의 문화 등을 통합적·국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의 전문가 협력 플랫폼인 ‘DMZ 포럼’에 국외 전문가 자원그룹을 추가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기도와 독일 연방자연보존청(FFN)이 공동 주최해 열린 ‘DMZ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 해외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

앞서 ESP(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공동의 장인 ‘후홀트 드 호른 교수’와 ‘로버트 보스만 지’ 교수 등 참석 전문가들은 “DMZ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구축하려면 장래적 교류를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DMZ 포럼’ 확대 등이 국내·외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ESP는 전 세계 1만5000여명의 전문가가 84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되는 대규모 네트워크다.

ESP에서 경기도에 ‘아시아 차부 설치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활동이 활발적인 요건이라면 사무 공간을 제공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DMZ 국제 워크숍은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 기념을 위해 계획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정례화 단계에 이르렀다. DMZ 포럼은 2009년 DMZ의 보존과 협력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됐다.



올해 DMZ 워크숍 성과는 현장답방 신청 많아 조기 마감 주민 인식 등 여러 목소리 경청

향후 DMZ 정책은 환경·가치 공감대 형성에 앞장 다양한 의견 검토후 정책 반영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

윤 “DMZ 국제 워크숍”의 성과는, 워크숍 과정 중 DMZ 현장 답방은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됐을 정도로 DMZ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DMZ의 약 70%가 사유지로 통일



전에 반드시 보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의 협력 플랫폼 구축, 주민 및 일반 시민에 DMZ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최초로 ‘DMZ 정책 담당관’을 설치했다. 이유와 필요는

DMZ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지난 2012년 3월 DMZ 정책부서가 마련됐다. DMZ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며 경쟁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적 혜택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DMZ 관련 정책 성과는, 도는 DMZ 홍보와 인보, 관광 뿐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생태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누리길 조성, DMZ 자전거 라이더스, DMZ 포럼 등 다양한 사업

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부터는 강원도, 충청자치부 와 함께 DMZ 관련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열린 ‘DMZ 국제 워크숍’에서 아시아 협력 방안에 대한 전체 토론도 열렸는데,

경인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해외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아시아 지역 협력 플랫폼 구상에 대한 구체화를 실행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국내 전문가들은 인접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안됐다.

국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자체별 및 행정구역 단위로 분리된 DMZ 정책을 통합 기구 설치 등으로 일원화해 시흥·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아시아 지역 지정방문 간 정책적 교

류를 아시아지역 협력 플랫폼 구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외에 ‘DMZ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교류를 행정과 전문기관 아니라 연상 활동가 및 NGO 자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지역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는 보존과 개발의 상호상생 접근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 등도 있었다.

도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집결한 뒤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경기도의 DMZ 정책 방향은, DMZ 보존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존은 단순히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DMZ가 가진 모든 가치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나 보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현황은,

2012년 독일연방 자연보존청(BFN)과 협력 관계를 맺은 뒤 국제회의 공동개최, 공동 자료집 출간 등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DMZ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베트남 구 지정지나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의 지정지 또는 이번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 인도-부탄 지정지인 ‘마나스’(MANAS)와의 협력을 구성 중이다.

DMZ 정책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은,

지역 주민을 DMZ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 도 정책 사업인 ‘평화누리길 게스트 하우스’ 사업 추진 시 마을주민과 함께 타 지역을 단사하는 등 공동으로 작업했고, DMZ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는 지정지 마을 부녀회 등이 농산물 장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em@

사진 = 이진우기자 poeett@

36.3 X 48.0 cm